

尹 처가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 김건희 지인까지 동원된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 판결문에 담겨

- 현안대응 TF, 윤석열 장모 최 씨 분당신도시 인근 16만 평 차명 투기, 김건희 서울대 EMBA 인맥 잔고 위조, 김건희 오빠 지인 차명 사용 등 패밀리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 판결문 확인
- 김병기 단장, “尹 처가 부동산 투기는 온 가족이 동원된 조직적인 범죄, 사위 윤석열 후보 처가 범죄 비호 한 것 아닌지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상임단장 국회의원 김병기)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씨의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징역 1년 판결문과 동업자 안모씨의 대법원에서 확정된 2심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 차명 투기로 90억 원대의 차익을 얻은 최씨 일당의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범죄행각에 윤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4남매와 그들의 지인까지 동원된 정황이 드러났다.

윤석열 장모 동업자 안씨 대법원 확정 2심 판결문 중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김OO을 도촌동 부동산의 공매절차에 대동하여 참석하거나 김OO에게 대출금의 구체적인 집행을 지시하고 보고받는 등 도촌동 부동산과 관련하여 금융 및 투자 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받았다. 또한, 최OO은 김OO으로부터 단순히 투자 관련 조언을 받는데 그치지 않고, 도촌동 부동산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김OO에게 허위의 잔고증명서를 만들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있도록 명의상 매수인으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이OO 최OO의 아들인 김▽▽의 친구(김건희 오빠 친구 김건희 오빠)를 소개하였고, 이OO에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이

당시 피고인과 최OO은 김OO을 통하여 신한저축은행에 48억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후 약 36억 원을 인출하여 잔금 납입 용도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위 마이너

2017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동업자 안씨에 대한 유죄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 일당의 범죄에는 최씨의 딸 김건희가 EMBA 과정에서 알게 된 김씨가 최 씨의 지시로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김건희 친오빠인 김모 씨의 친구 또한 최 씨의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윤석열 장모 부동산 실명법 등 위반 1심 판결문 중

③ L은 공인중개사로서 2005년경 피고인 A의 아들 AM의 부동산 거래를 성사시켜 준 이래 AM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왔고, AM이 분석집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083쪽).

④ 피고인 B는 2010년경 AO대 MBA과정에서 피고인 A의 딸 AN를 알게 되었고, 공범김씨 서울대EMBA 김건희

⑤ K 부동산을 담보로 48억 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치른 후 남은 자금으로 위 대출금의 이자를 충당하다가 대출금이 모두 소진되고 추가적으로 3억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자, 이를 지급하고 10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은 것은 피고인 A와 그가 지배하는 주식회사 AK 측이다. ESI&D

최씨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판결문에도 동일한 사실관계가 적시되어있다. 최씨가 분당신도시 인근 도촌동 일대 16만 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최씨는 아들 김모 씨의 친구 L씨를 동원, 당시 성남시민인 L씨의 명의를 빌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해당 토지를 차명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

이후 최씨는 비정상적인 48억 원 한도의 신한저축은행 마이너스통장을 개설받아 도촌동 토지의 실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최씨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성 대출을 시행한 신한저축은행의 대표는 박 모씨로, 현안대응TF가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모씨는 김건희씨의 서울대학교 EMBA 과정을 함께 수학하였다.

서울대학교 EMBA 2기 졸업생 명단(서울대학교 자료회신)

8	경영학과(Executive MBA)(경영학전공(Executive MBA))	김건희	2010-03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Executive MBA))	KIM KEON HEE	2012-02	
19	경영학과(Executive MBA)(경영학전공(Executive MBA))	김 → 잔고위조 공범	2010-03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Executive MBA))	Kim	2012-02	
27	경영학과(Executive MBA)(경영학전공(Executive MBA))	박 → 신한저축은행 대표	2010-03	졸업
	경영전문석사(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Executive MBA))	PARK	2012-02	

최씨가 차명으로 도촌동 땅을 취득한 이후 등기부상 권리를 이전하는데 동원된 주식회사 ESI&D 역시 최씨 일가의 가족회사로, 최 씨가 대표이사이며 김건희씨의 친언니·오빠가 각 사내이사로, 남동생이 감사로 재직하였다. 김건희씨 또한 ESI&D가 근거당권을 인수하기 1년 전인 2014년 7월경까지는 ESI&D의 이사로 재직하다 사임하였다.

윤석열 처가 가족회사 이에스아이엔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상 호 주식회사 방주산업	
주식회사 이에스아이엔디	
이사 김 70 ***** 김건희 친오빠	감사 김 74 ***** 김건희 친동생
2005년 07월 18일 취임	2005년 07월 18일 취임
2008년 07월 18일 중임	2008년 03월 31일 중임
사내이사 김 70 *****	2011년 03월 31일 퇴임
2011년 07월 18일 중임	이사 김 69 ***** 김건희 친언니
2014년 07월 18일 중임	2006년 12월 06일 취임
2017년 02월 14일 사임	사내이사 김 69 *****
대표이사 최은순 46 ***** 남양	2009년 12월 06일 중임
2005년 07월 18일 취임	2012년 12월 06일 중임
2008년 07월 18일 중임	2014년 07월 18일 사임
대표이사 최은순 46 ***** 서울	이사 김명신 72 *****
2010년 11월 10일 주소변경	2008년 03월 31일 취임
2011년 07월 18일 중임	사내이사 김건희 72 *****
대표이사 최은순 46 ***** 경기	2008년 11월 20일 변경
2014년 07월 16일 주소변경	2011년 03월 31일 퇴임
2014년 07월 18일 중임	사내이사 김건희 72 *****
2014년 11월 10일 사임	2011년 07월 18일 취임
	2014년 06월 13일 사임

현안대응TF의 김병기 단장은 “윤석열 후보 장모 최씨 일가의 부동산 차명 투기, 사문서 위조 등의 범죄 행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장모는 피해자’ 라며 감싸는 것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라고 지적하면서

“장모 최 씨의 대법한 부동산 투기범죄에 김건희 씨를 비롯한 자녀들과 그들의 지인까지 총동원되었다. 고위 검사 사위인 윤석열 후보가 처가의 부동산 패밀리 비즈니스 범죄를 비호한 것은 아닌지, 최 씨가 윤 후보의 지위를 등에 업고 더욱 과감한 범죄행각에 나간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끝